여수시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 논란

감사원 지적 불구 사업 강행…시민단체 "골프장 전면 취소" 등 반발

여수시가 산지 전용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어서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여수시 안기홍 관광개발과장은 19일 간담회를 갖고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봉계산 산자락 하단부 표고를 어느 지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감사원과 해석차이가 있을 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다"며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사업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이어 "특구 사업이 결국 특정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불합리한 행정이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대중골프장과 관광호텔이 건립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만큼 특정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산림청과 여수시가 봉계동 일대 산자락 하단부 표고를 법적 기준보다 42m 높은 119.2m, 5부 능선 표고를 법적 기준보다 21.1m 높은 185.5m로 적용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티파크 도심골프장 건설 반대 시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여수시장과 일부 시의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업 중단 의결 주문을 무시한 데 이어 감사원 지적에도 사업을 강행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또 "여수시장은 골프장 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법에 따라 특구 지정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봉계동 일대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지하 1층, 지상 4층 52인실 규모의 호텔 건설을 각각 허가했다.

시는 골프장 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올해 말 100억원 규모의 청소년시설을 착공해 2009년 또는 2010년까지 시에 기부채납토록 했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여수 22개 섬 관광지로 개발

올해부터 관광공사 지원…펜션·꽃섬단지 등 숙박·레저시설

여수시가 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22개 섬을 관광지로 개발한다.

여수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국·도비와 시비 1천800억여원을 투자해 49개 유인도 중 거문도와 금오도, 사도, 낭도 등 22개 섬에 펜션과 꽃섬단지 등 숙박과 레저시설을 조성한다.

22개 섬은 1·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따라 선착장과 물양장, 순환도로 등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 도서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유형화·특성화 계획이 수립된다.

여수시는 오는 24일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하고 관광공사로부터 업무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여수시와 관광공사는 도서 관광자원 조사 및 관광개발 방안 연구결과에 따른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국내외 선진 관광자원 개발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관광공사는 도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정책제안 등 컨설팅 지원을 맡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2012 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관광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보성 웅치 일림산 공중화장실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보성군 웅치면 일림산 공중화장실〈사진〉이 아름다운 남도화장실로 선정돼 1천만원의 시설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일림산 공중화장실은 전남도가 도내 22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청결성, 유지관리, 문화공간 창출, 친자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림산 공중화장실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조형미와 계곡수를 사용해 연간 300여만원 상당의 수자원을 절약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구례, 왕우렁이 친환경 쌀 재배 박차

구례군이 왕우렁이 농법을 이용해 친환경 쌀 재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례군은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3천961농가 1천980.5㏊에 79.2t의 왕우렁이를 공급했다.

이에 따라 왕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재배규모는 지난해 981.6ha보다 2배 증가했다.

무농약 친환경 농법에 이용되는 왕우렁이는 물속에서 각종 풀들을 왕성하게 먹어치우는 습성으로 제초제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친환경쌀인 '황새와 우렁이 쌀'이 전국 최고수준의 품질을 인증받아 소비자가 매년 찾을 수 있도록 소비촉진 홍보와 고객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닭·오리고기 안전해요" 고흥군 시식 행사

고흥군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18일 군청 구내식당에서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닭고기 시식행사를 가졌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고흥 '비파' 고소득 작물 각광

비파〈사진〉가 고흥군의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 받고 있다.

고흥군은 온화한 기후와 기름진 토지 등 생육조건이 알맞아 남부지역 일대 20여 농가에서 비파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비파나무를 가로 수종으로 식재했다.

비파는 잎과 열매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리적 효능이 입증되면서 고소득 창출이 가능한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파잎차는 기관지와 호흡기질환, 비만해소는 물론 당뇨와 항암작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光州日報 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본부장 김동호
지광현 차장(보성)
고흥주재 주각중 부국장
여수주재 박양규 부장
순천주재 김진수 차장
광양주재 김춘호 차장

'이순신 장군 리더십 배우자' 엑스포 아카데미 신청 몰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배우려는 여수시민과 청소년들의 열기가 뜨겁다.

오는 21일 개강하는 '엑스포 아카데미 - 이순신 리더십학교'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1주일만에 160명을 넘어섰다.

또 학생들에게도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잇따라 여수시는 다음달 25·26일 이틀간 GS칼텍스 밸류 센터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상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순신, 청소년 리더십 학교'를 개설한다.문의(061-690-2345~6.

/여수=박양규기자 ykpark@